



기독일보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음력 8월 10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1885호

“한국교회 미스바 광장 이끄신 조용기 목사님”

故 조용기 목사 조문 시작... “큰 지도자 잃어”
김장환·김삼환·이동원 목사 등, 위로예배 드려

14일 별세한故 조용기 목사에 대한 조문이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마련된 조문소에서 15일 아침부터 시작된 가운데, 교계 원로 목회자 등이 이날 오후 조문소 옆 별도의 공간에서 유족들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렸다.

이 예배에는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김삼환 목사(명성교회 원로),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장종현 목사(예장 백석총회장),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 등이 참석했다.

한기봉 장로(극동방송 사장)가 사회를 맡은 예배에선 오정현 목사가 기도했고, 강장현 목사(극동방송 부사장)의 성경봉독(사무엘상 7:5-14) 후 김삼환 목사가 ‘미스바 광장의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축도는 최성규 목사가 했다.

먼저 기도한 오정현 목사는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의 믿음을 계승하길 원한다. 조 목사님은 철학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셨다”며 “우리들도 남은 인생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설교한 김삼환 목사는 “사랑하는 조 목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미스바 광장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이 땅 위에 임하길 바란다”며 “조 목사님

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에서 하나뿐이었던 이 땅에 보내신 사자였다”고 했다.

김 목사는 “1958년 조 목사님은 천막교회에서 시작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조 목사님을 생각할 때 천막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 여의도 광장, 미스바의 조 목사님을 우리는 늘 생각한다”며 “한국전쟁 이후 절망과 상처, 한 곳도 성한 곳이 없고 소망이 없던 그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여의도로 보내 미스바 광장을 열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조 목사님을 통해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붙이셨고, 한국교회는 일어날 수 있었다. 한국의 밤하늘은 십자가로 밝혀졌다”며 “교회 없는 마을이 없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김 목사는 “미스바 광장은 오늘 여의도 광장과 같다”면서 “만약 60~70년 80~90년대 광장의 집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그런 집회를 이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전 분야에서 번영과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이 집회를 이끌어 오신 분은 두말할 것 없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했다.

그는 “영적 부흥이 없으면 다른 부흥은 절대로 안 된다. 조 목사님은 여의도에만 불을 붙이신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



“천국가신 목사님”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故 조용기 목사의 빈소가 마련됐다. 조문은 17일까지 오전 7시~오후 10시 진행된다. 빈소에 고인의 영정 사진이 걸린 가운데, 조문객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스시

에 불을 붙이는 세계 미스바의 주의 종이었다”며 “남미나 북미,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주의 종을 찾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어느 교단,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한국교회에는 조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 그분의 영성운동과 기도 운동을 이어받지 않은 곳, 그것이 스며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김 목사는 “한국교회는 조 목사님의 사역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분의 사역을 꼭 기념하고 잘 이야기하면서 빛내야 할 것”이라며 “모두 힘을 합쳐 조 목사님의 유업을 계승한다면 다시 광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문은 이날 아침 7시부터 시작됐다. 조문소가 마련된 서울 여의도순복

음교회 베다니홀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하는 교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조문은 17일까지 가능한 가운데, 첫날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다. 대권 주자들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이날 조문소를 찾았고, 그 밖에 김부



교계 원로 목회자들이故 조용기 목사 유족 등과 함께 위로예배를 드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겸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도 조문했다.

장례위원장인 소강석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새이레교회 담임)는 일찍부터 조문소를 지키고 있다. 소 목사는 “우리 한국교회가 큰 지도자를 잃었다. 성령운동을 통해 부흥을 주도했던 조용기 목사님이셨다. 아침부터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 우리가 조 목사님의 성령부흥 운동을 이어가야 한다. 조용기 목사님의 소전을 애도해달라”고 했다.

장례는 한국교회장(韓國教會葬)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인 소강석이사장(장례예배)은 오는 18일 오전 8시 여의도순복음교회 대성전에서 거행된다. 예배에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설교한다. 장지는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국제급식기도원 묘원이다. 김진영 기자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해외선교, OCC 선물상자”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15일 기자간담회 열려

사마리안퍼스 코리아(Samaritan's Purse Korea, 크리스토퍼 제임스 위크스 대표사진)가 15일 서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단체는 이날 새로운 해외선교 전략으로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perational Christmas Child 이하 OCC)’에 관해 소개했다.

먼저 크리스토퍼 제임스 위크스 대표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Operational Christmas Child)’를 통해서 한국의 성도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제공받을 수 있을지를 나눌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어서 OCC(Operational Christmas Child) 사역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그래스 선교사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 사역은 기본적으로 선물상자를 모아서 안에 든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실제로 전달하는 사역”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 아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선물상자를 받게 된다. 93년도에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1억 8천 8백 만개의 선물상자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올해 2021년도에는 970만 개의 선물상자를 통

해 970만 명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줄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작년엔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작되어 이미 시작된 다른 10개의 나라가 동참하게 되었다. 그래서 작년에 36개의 교회와 기관들과 협력하여 약 3천여 개의 박스를 모았고, 그것을 몽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원래는 큰 전도 집회를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각 가정마다 방문해서 혹은 작은 규모로 선물상자를 들고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며 “잘 훈련된 교사들이 선물상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설명된 복음을 제시함으로 아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선물상자를 받은 아이들은 12주간 시작되는 제자양육 프로그램 ‘가장 위대한 여정에 초청을 받는다’”며 “12주간의 교육을 마친 아이들은 수료식과 함께 성경책을 선물로 받는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선물을 받는 이 사역이 계속 전진되고 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perational Christmas Child)는 복음 전도와 함께 다음세대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브라이언 선교사는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perational Christmas Child)는 성탄절 시즌에 맞춰서 교회와 기관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선물상자를 모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사역”이라며 “개인이나 교회, 단체, 학교 할 것 없이 누구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여 선물 박스를 보낼 수 있다”

고 했다. 이어 “너무 소중한 것은 상자가 아니라 한 아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고, 직접 포장한 한 선물물이 아이에게 전달된다”며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910만 개의 선물상자를 모아서 현재도 나누어 주는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역”이라며 “이미 구축된 훌륭한 교사들과 시설이 있기에 더 필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선물상자”라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선교지와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지역교회들과 연결하여서 협력할 수 있는 사역이 사마리안퍼스와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perational Christmas Child)라고 말 할 수 있다”며 “이 모든 사역의 시작점이 바로 각 가정과 교회에서 직접 포장한 선물상자 하나

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마리안퍼스의 대표 프랜클린 그랜ham 회장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이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가장 소망과 희망이 필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다음세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교단과 교회들이 동참하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마리안퍼스 코리아는 오는 10월 7일 오전 10시와 오후 8시에 “OCC 언박싱(Unboxing OCC)” 온라인 행사를 갖는다.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현장에서 어떤 간증들이 있는지,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행사 참여는 사마리안퍼스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교회나 그룹에서 동참하길 원하는 이들은 홈페이지에서 자료와 물품들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 정지동 기자

변하지않는 쇼핑 1번지!! 투자 1번지!!

씨티아이아동복

수출전문도·소매상가

특별 분양

회사 보유분

토지+건물
등기분양

씨티아이아동복

CTI

신세계

신세계

남대문 대로변 아동복전문도·소매상가!

1억4천4백만원 투자시 月 132만원, 임대료 바로지급!!

남대문시장개장 600년...
1만 2천여 점포에 하루 40만복적
'없는게 없는 쇼핑명소'

남대문 시장은 지난해 6월기준 1만 2천여 점포에서 1,700여종의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백화점」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하루 40만의 손님들에게 물건을 팔고 있으며 외국인 고객도 1만명에 이른다. 특히 아동복은 남대문시장의 대표적인 품목으로 전국 시장의 90%를 점유하고있으며 지난해 문화관광시장에 선정되는 등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씨티아이아동복 성공투자 포인트!!

- 이미 완공된 상가로 안전성이 보장된 상가!
- 빠른 입점을 통해 신속한 투자금 회수!
- 불황이 없는 업종으로 임대수요 급증
- 황금 전국상권 관광특구, 특급역세권!
- 남대문시장 대표 수출전문도·소매상가!
- 시행사에서 책임 임대보증 약서서 발급!
- 회현역 바로 앞 최상의 입지!

계약과 동시에 수익을 보증서 발급

구분	분양가	실투자금	계약금 (계약시)	1차 중도금	2차중도금 (은행대출)	잔금 (보증금 대체)	월세
2 점포	22,600	14,400	6,000	8,400	7,000	1,200	132
2F 3 점포	33,900	21,600	9,000	12,600	10,500	1,800	198
5 점포	56,500	36,000	15,000	21,000	17,500	3,000	330

※ 방문 상담 완료시 소정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 선착순 입금순으로 호수 지정 | 미계약시 청약금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청약개좌 우리은행 1005-403-316982 예금주 (주)해누리앤씨

시행사 (주)해누리앤씨

사공사 포맨인테리어

담당법무사 책임법무사 허태석

협력은행 우리은행

분양 02) 778-9015